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음 10월 2일) 제24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군산형 일자리 후속조치 본격화

상생협의회 운영·업종별 적정임금 구현 등 실행방안 마련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 양성도 추진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상생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북도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순조로운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에 나섰다. 28일 전북도는 '전북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완성차 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등 후속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될 에디스 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모두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준공 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 업종별 적정임금 구현 등 선진임금체계 도입, 수평적 계열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특화 컨설팅을 추진한다. 먼저, 상생협업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과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또한, 참여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추진을 유도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완성차 업체의 자체 전기차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의 전기차 핵심 전기·전자부품 및 공용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전북의 행복한 내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청 실·국장 및 직원들은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에 참여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려기사 2면>

참여기업 및 부품업체 R&D 지원과 병행하여 삼성 SDI, SK 등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전기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 이외에도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새만금 주행사장과 주요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인력, 자율주행테스트베드(2020년 신규)를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배터리 업체, 전력회사, 연구계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북 전기차자동차 얼라이언스'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

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전기차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전문학사 및 전문 R&D 인력양성 과정개발, 현장실습 지원 등 전기자동차 산업관련 인재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 되면서, 산업부의 공모가 언제쯤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상임위에서 개정 법안에 대해 별다른 쟁점이 없었고, 구미, 광주, 밀양, 강원 등 방안 통과는 기대하는 지역이 많아,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내년 식품소재·반가공 공모에 도내 2개소 선정

전북도(농식품산업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완주 HtO Life'와 '남원 원예농협'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공모 이후 전국에서 신청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완주 HtO Life·남원 원예농협와 현장 확인, 최종 사업계획 발표, 전문가 질의응답 등을 거쳐 전북도는 완주 HtO Life와 남원 원예농협 2개소가 선정됐다. HtO Life는 완주군에 위치 기능성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2008년 연구소

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 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식품 감소기업이다. 남원원예농협은 2010년 학교급식센터 개점한 이래 남원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풀무원식품 등 국내 유명식품기업에 반가공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원예 농

산물을 가공해 식품 대기업, 학교급식으로 납품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판로 다변화로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도는 대규모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품원료를 전처리 또는 반가공 처리해 공급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연계한 원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가공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인터뷰 - 송하진 도지사 “군산형 일자리, 갈등 최소화 한단계로 진일보한 상생형”

“목표는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육성”

전북도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본보는 송하진 도지사를 찾아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와 타 지역과의 차별점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이 참여한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라는 점이 다.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GM 군산 사태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간, 대기업에 의존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빠이픈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GM 사태로 잃은 2000여개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약 900여 명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침체 되었던 주변 상권,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이번엔 협약을 체결한 완성차 업체는 2022년까지 17만대 규모의 전기버스, 트럭,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군산 또한 8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 R&D 기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에서도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기차 부품업체 전환을 지원하고,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 지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을 추진, 군산을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24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간 상생형 일자리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상생형 일자리 창출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일자리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중견·벤처기업 중심으로 불균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경제 모델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종속관계 대신에 원하청간 수평적 구조와 개방적 납품을 통한 공동활용, 수익공유,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방안 등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다.

전국 최초의 지역공동교섭, 적정임금, 근로시간계좌제, 공동복지기금, 노동이사회참관제, 우리사주제 등 선진형 근로시스템을 협약안에 담은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상생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성 투자협약식 후 얼마 되지 않은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전북을 찾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폐쇄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전북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격려와 지원의 뜻을 강하게 전했다고 본다.

대통령 방문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후 추진되는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공모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